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11.6.3.107>

**【연구논문】**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

김대환\*\*·한상용\*\*\*

**논문요약**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희망적인 평가가 개인, 나아가 한 나라의 행복수준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장기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순위로짓이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4점 만점 중 2.52점 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정부에 비해 현 정부에서 그리고 최근으로 갈수록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더 비관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점차 악화되는 현상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계층에서 발견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왜 신분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왜 최근 들어 이러한 가능성이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신분상승 가능성과 국민 행복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주제어: 사회경제적 지위, 신분상승, 순위로짓이원고정효과모형,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 소득계층

\*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1저자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교신저자

## I. 서론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는 계층체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혼합한 지위로 정의될 수 있다(Baker, 2014). 사회적 지위는 주로 직업, 교육수준 등에 의해 평가되고 경제적 지위는 주로 경제적 능력, 즉 소득이나 자산 등에 의해 평가된다. 물론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가하는 새로운 요인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건강, 언어능력, 타인에 대한 영향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Adler et al 1994; Seeman and Crimmins 2001; Anderson and Brion 2014).

효용(행복)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의사결정 원리를 규명하는 대표적인 학문인 경제학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를 행복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지목한다(Azizi et al 2017).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만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규모가 1조 6,463달러로 세계 12위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동 시기에 한국은 전 세계 153개의 평가 대상국 중 행복수준이 61위에 머물렀다(UN 2020).

이러한 한국의 사례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행복의 결정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할 수 있다(구재선·서은국 2011).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분석한 연구는 현재 국내외 모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본인이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와 그러한 평가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그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희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에 대한 시기적 변화를 최근 정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에 대한 실증분석을 소득계층별로 세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 서론에 이어 II 장에서는 본 연구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제 III장에서는 실증분석에 활용된 모형과 자료를 기술한다. 제 IV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논의하고, 제 V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들은 상당수가 행복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왔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행복도를 연구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평가된 사회경제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으로 평가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행복에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재우 2019; 윤인진·김상돈 2008).

또한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인식 간 격차가 행복의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이연경·이승중 2017). 이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타인들과 비교를 통해 스스로 인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지닌다는 Diener et al(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해외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행복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개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증가한다는 공통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Anderson et al 2012; Boyce et al 2010; Clark et al 2008; Luttermer 2005).

하지만 Easterlin (1974)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GDP가 증가하더라도 행복도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Easterlin의 역설'이라고도 일컫는데, 이후 동 역설의 찬반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Hagerty et al 2003). 이는 경제학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효용(행복)이 증가하지만, 소득이 추가로 증가할 때 효용의 증가 정도는 점차 감소하며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소득증가에 효용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들도 존재하는데, 실증분석 결과 역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즉, 직업, 교육수준 등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증가한다는 주장이다(구교준 외 2014; Zhou 2014).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 모두 현재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행복도가 높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만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행복수준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에는 현재의 신분<sup>2)</sup>(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신분의 상승 자체가 아닌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kici and Koydemir(2016)는 영국의 패널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현재의 소득, 연령, 나이, 교육 수준 등이 개인의 행복도에 영향을 주지만 동일한 소득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큰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개인, 나아가 국가 전체 행복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경제적 지위에 대한 기대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미래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승 기대가 행복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Lee and Baek(2016)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개인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는 비록 현재의 사회적 지위가 낮더라도 혼자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미래에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수록 개인의 행복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계층사다리를 위한 지출을 통해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 나아가 국민의 행복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행복도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전에 국민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전적 의미로 ‘신분’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으나, 표현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등의 표현을 필요에 따라 일반인들 사이에 ‘신분상승’이라고 통용되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기술한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국민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추세는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패널자료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아마도 가용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이해된다.

일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실증분석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만을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국인 전체를 대표하는 자료가 아닌 특정 도시 또는 계층만을 중심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활용한 것에 한정된다. Ekici and Koydemir(2016)은 동 주제와 관련하여 패널자료(panel data)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장기의 패널자료를 활용해 과거 정부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는 시기 동안 한국인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희망이 어떠한 추세를 보여 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그러한 흐름이 국민 전체적인 흐름인지 아니면 특정 계층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 Ⅲ.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 1. 분석 모형

본 연구는 첫째,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 (식 1)을 패널자료(panel data)로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을 일정한 간격으로 조사한 패널자료가 횡단면자료(cross-sectional data)에 비해 우월하다(Green, 2003).

$$Class_{it} = Year_t \alpha + X_{it}' \beta + u_{it} \quad (\text{식 1})$$

$$i = 1, 2, \dots, N, \quad t = 2013, 2014, \dots, 2019$$

$Class_{it}$ 은 개인  $i$ 가  $t$ 기에 평가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지표를 의미한다.  $Year_t$ 는 연도별 더미변수(dummy variable)의 벡터(vector)이며  $\alpha$ 는 연도별로 변화하는 신분상승 가능성 지표를 보여주는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의 벡터다.

$X'_{it}$ 는  $Year_t$ 를 제외하고 종속변수  $Class_{it}$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명변수 벡터,  $\beta$ 는 회귀계수의 벡터다. 마지막으로  $u_{it}$ 는 오차항(error term)이다. 오차항은 전통적인 오차항( $\epsilon_{it}$ ) 외에도 개인고정효과(individual fixed effect)인  $c_i$ 가 포함될 수 있다. 개인고정효과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별 특성을 의미한다.

$$u_{it} = c_i + \epsilon_{it} \tag{식 2}$$

만약 개인고정효과가 설명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다면 추정계수(estimated coefficient)에 편의(bias)가 발생한다(Cameron and Trivedi, 2005). 고정효과와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으면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적합하며, 반대로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이 적합하다(Wooldridge, 2010).

고정효과와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의 존재 여부는 Hausman 테스트로 검정(Hausman, 1978)할 수 있는데, 검정 결과 모든 분석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p < 0.05$ ),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을 주요 분석모형으로 사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차분방식을 이용해 개인고정효과를 제거하게 된다(Green, 2003). 참고로, 개인고정효과를 제거하고 (식 1)처럼 연도별 영향(시간고정효과)을 직접 통제하는 모형을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이라고 한다. 즉,  $Year_t$ 의 추정계수는 다른 설명변수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연구자에 의해 관측되지 않는 개인고정효과를 배제한 상황에서 국내 성인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추이를 보여주게 된다.

둘째, 본 연구는 (식 3)을 활용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최근 두 번의 정권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Class_{it} = \gamma PreviousRegime_t + \delta CurrentRegime_t + X'_{it}\beta + u_{it} \quad (식 3)$$

$$i = 1, 2, \dots, N, \quad t = 2013, 2014, \dots, 2019$$

본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의 기간이 2013~2019년이므로 동 기간에 이전 정부(2013~2016)와 현 정부(2017~현재)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PreviousRegime*은 이전 정부, 그리고 *CurrentRegime*은 현 정부를 의미하며, 이때 기준 시기(reference time)은 2013년도가 된다. 결과적으로  $\gamma$ 는 2013년과 비교한 과거 정부(2014~2016년) 때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delta$ 는 2013년과 비교한 현 정부(2017~2019년) 때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의미한다. 물론 이전 정부와 현 정부를 구분하는 하나의 더미변수를 활용해 분석하는 것도 방법이지만<sup>3)</sup>, 과거 정부의 3년, 현 정부의 3년이라는 동일한 기간을 비교하기 위해 분석 모형을 (식 3)처럼 설정하였다.

셋째로, 본 연구는 (식 4)를 활용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하였다.

$$Class_{it} = Year'_t\alpha + \eta LowClass_{it} + LowClass_{it} * Year'_t\theta + X'_{it}\beta + u_{it} \quad (식 4)$$

$$i = 1, 2, \dots, N, \quad t = 2013, 2014, \dots, 2019$$

*LowClass<sub>it</sub>*는 저소득층을 의미하는 더미변수이며,  $\eta$ 는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과 저소득층 간 신분상승 가능성에 평가의 차이를 보여준다<sup>4)</sup>. *LowClass<sub>it</sub> \* Year'<sub>t</sub>*

3) 이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도 (식 3)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4) 계층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식 4)처럼 계층을 구분하였다.

는 저소득층과 연도변수의 교호작용변수 벡터로 시기가 변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추이 차이를 보여준다. (식 4)에서 소득계층은 가구소득으로 구분한 변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 1) 및 (식 3)의  $X_{it}$ 에서 가구소득 변수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sup>5)</sup>

넷째, 본 연구는 (식 5)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LowClass_{it}$ 을 고소득층을 의미하는  $HighClass_{it}$ 로 교체하고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소득 계층별로 분석하였다.

$$Class_{it} = Year'_t\alpha + \eta HighClass_{it} + HighClass_{it} * Year'_t\theta + X'_{it}\beta + u_{it} \quad (식 5)$$

$$i = 1, 2, \dots, N, t = 2013, 2014, \dots, 2019$$

(식 5)의 분석 방식과 해석 방식 모두 (식 4)와 동일하다. 참고로, (식 1)~(식 5)에서 동일한 변수더라도 통제하는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회귀계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표기의 편의상 동일한 그리스 문자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래 분석 자료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종속변수  $Class_{it}$ 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수록 숫자 1, 2, 3, 4를 부여하였다. 즉, 종속변수는 순위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순위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의 사용이 적합한데, 실증분석에 활용된 데이터가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과 순위로짓이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 가능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Hausman 테스트의 결과로 모든 모형에서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다고 검증되어 순위로짓이원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다. 다만, 순위로짓이원고정효과모형은 성별처럼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변수나 변동성이 낮은 변수들의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적합하

5) 유사한 변수를 설명변수로 동시에 활용할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Krishna, 1975).



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로도 분석하였다(Cameron and Trivedi 2005).

또한 순위로짓모형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계수는 그 자체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산비(Odds Ratio : OR)로 전환하였다. 승산비는 아래 (식6)과 같이 계산되었다.

$$OR = e^{\text{estimated coefficients}} \quad (\text{식 6})$$

## 2.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2013~2019년)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또는 패널조사(longitudinal survey)다<sup>6)</sup>.

국내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다양한 패널자료가 가용하나, 한국노동패널은 국내 패널자료 중 가장 먼저 구축된 자료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집하였으며, 특히 표본수도 충분히 결과의 일반화에 용이하다. 무엇보다 각 개인을 대상으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매년 질문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패널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유일하다.

한국노동패널자료는 현재 2019년에 조사한 22차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표본을 최근 7년으로 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분상승에 대한 설문은 8차 때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1~7차는 분석에 활용할 수 없다. 둘째, 시기별로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패널자료의 활용이 중요한데, 특히 분석기간 동안 동일한 대상의 의식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분석 기간 동안 완벽히 동일한 대상을 유지하면서 설문한 균형패널자

6)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대한 기초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li.re.kr>).

료(balance panel data)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분석 대상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일 경우 중도에 사망하거나 중도에 신규 편입된 표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 기간을 확대할수록 관측수는 증가하지만 표본수가 감소하여 한 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을 전 정부와 현 정부를 포괄할 수 있는 2013~2019년 데이터로 한정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을 20세 이상 성인남녀로 한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61,838개의 관측수(매년 8,834명의 표본)가 실증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_\_\_\_\_님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계량화한 값을 활용하였다. 만약 동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면 1을,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면 2를,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면 3을,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면 4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종속변수는 값이 높을수록 신분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순위적인 의미를 지닌다.

〈표 1〉은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들의 이름과 정의를 보여준다. 설명변수로는 분석 모형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도별 더미변수, 소득계층을 의미하는 더미변수들이 활용되었다. 소득계층의 분류는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이 활용되는데, 중위소득의 25% 미만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면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활용하였다.

$X'_{it}$ 에는 연령대, 성별, 학력수준, 혼인상태, 노동시장 참여 형태, 건강상태, 그리고 가구특성 변수가 포함된다. 가구특성에는 연간 가구소득과 자산이 포함되는데, 모두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로그값으로 전환한 값을 활용하였다. 특히 가구소득은 개인소득으로 전환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균등화소득으로 전환하였다(식 7 참조). 이는 동일한 가구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가구원수가 다르면 소득수준 또는 생활수준이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또한 가구원수의 제공근이 활용되는 이유는 가구원들이 의식주를 공용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text{균등화소득} = \frac{\text{연간 총 가구소득}}{\sqrt{\text{가구원수}}} \quad (\text{식 7})$$

패널자료는 횡단면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인 성격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소득 및 자산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실질 가치로 변환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과정에서 20대, 여성, 고졸미만, 미혼, 무직과 같은 그룹변수들의 경우, 2013년이 기준그룹(reference group)으로 활용되었다.

〈표 1〉 변수 이름 및 정의

구분	변수 이름	정의
종속변수	신분상승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면 1, “별로 그렇지 않다”면 2, “대체로 그렇다”면 3, “매우 그렇다”면 4
계층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미만이면 1, 아니면 0
	고소득층	중위소득 150% 초과면 1, 아니면 0
나이	20대	나이가 20대면 1, 아니면 0
	30대	나이가 30대면 1, 아니면 0
	40대	나이가 40대면 1, 아니면 0
	50대	나이가 50대면 1, 아니면 0
	60대	나이가 60대면 1, 아니면 0
	70세 이상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1, 아니면 0
성별	여성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
	남성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
학력수준	고졸미만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았으면 1, 아니면 0
	고졸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면 1, 아니면 0
	대졸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1, 아니면 0
혼인상태	미혼	결혼을 한 적이 없으면 1, 아니면 0
	배우자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가 있으면 1, 아니면 0
	무배우자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가 없으면 1, 아니면 0
노동시장 참여 형태	무직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1, 아니면 0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이면 1, 아니면 0
	자영업자	자영업자이면 1, 아니면 0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건강이 아주 안좋다”면 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면 2, “보통이다”면 3, “건강한 편이다”면 4, “아주 건강하다”면 5

가구 특성	로그(가구소득)	균등화소득(단위 : 만원)의 로그값
	로그(자산)	가구자산(단위 : 만원)의 로그값
연도	2013년	2013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4년	2014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5년	2015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6년	2016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7년	2017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8년	2018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9년	2019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 IV. 분석 결과

##### 1.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표 2〉는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기술통계를 보여주는데, 전체 표본뿐만 아니라 소득계층별(저소득층, 고소득층) 수치들도 보여준다. 그리고 각 변수들의 평균 값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독립표본 t-검정하여 통계적 유의성도 표시하였다. 기술통계에 따르면, 2013~2019년 동안 한국인들은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4점 만점 중 2.52점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고소득층은 2.66점으로 저소득층의 2.48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52.89세였는데, 저소득층은 65.92세로 고소득층 47.34세에 비해 나이가 많았다. 이는 한국이 OECD 국가와 빈곤율이 큰 차이가 없으나 노인계층의 소득이 낮아 빈곤율이 높다고 지적한 김대환 외(2017)의 연구와 일치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성별 비율을 고려 시, 양쪽 모두에서 여성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OECD 국가 중 한국은 성별 소득 차이가 가장 큰 나라로(OECD, 2021) 경제활동이 여전히 남성 중심인 한국의 성역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OECD의 최근 자료<sup>7)</sup>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간 임금수준 차이가 평균 12.8%인데, 한국은

32.5%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학력수준 차이도 매우 컸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율은 저소득층이 61%이고 고소득층은 11%인 반면,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은 저소득층이 13%이고 고소득층은 52%였다.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자나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고소득층이 높고, 결혼은 하였으나 배우자가 없는 비율은 저소득층이 높았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 측면에서도 저소득층은 무직자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은 근로자가 많았는데 특히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5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도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큰데, 1~5점으로 평가한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전체 샘플의 경우 3.4점, 저소득층은 2.94점, 고소득층은 3.69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도 좋다고 평가하였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가구소득 기준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 계층 간 소득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연구기간 동안 평균 균등화소득이 2,501만원인 반면 저소득층은 482만원, 고소득층은 4,970만원으로 무려 10.3배의 차이를 보였다. 기술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저소득층은 평균 가구원수가 1.98명으로 고소득층의 3.76명보다 절반 정도이며, 균등화소득 이전의 가구소득은 각각 659만원, 9,360만원으로 그 차이가 14.2배로 확대된다. 반면, 두 소득계층 간 자산의 차이는 3.5배로 소득차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

구분	전체 샘플		저소득층		고소득층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분상승	2.52***	0.66	2.48	0.71	2.66	0.59
저소득층	0.26***	0.44	1.00	0.00	0.00	0.00
고소득층	0.25***	0.43	0.00	0.00	1.00	0.00
연령	52.89***	15.22	65.92	14.45	47.34	11.42
20대	0.05***	0.21	0.03	0.16	0.07	0.26
30대	0.17***	0.38	0.05	0.21	0.18	0.38
40대	0.23***	0.42	0.07	0.25	0.32	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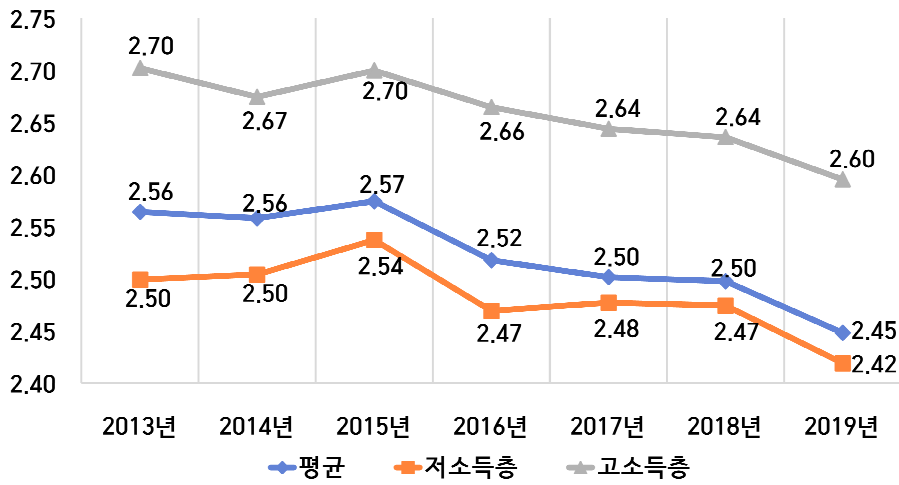
7) OECD가 2016~2019년 자료를 집계하여 2021년에 발표한 수치를 활용하였다.

50대	0.21***	0.41	0.10	0.30	0.31	0.46
60대	0.17***	0.38	0.28	0.45	0.10	0.30
70세 이상	0.17***	0.37	0.48	0.50	0.03	0.16
여성	0.53***	0.50	0.59	0.49	0.52	0.50
남성	0.47***	0.50	0.41	0.49	0.48	0.50
고졸미만	0.30***	0.46	0.61	0.49	0.11	0.31
고졸	0.36***	0.48	0.26	0.44	0.37	0.48
대졸	0.34***	0.47	0.13	0.34	0.52	0.50
미혼	0.10***	0.30	0.08	0.27	0.10	0.30
배우자	0.76***	0.43	0.59	0.49	0.87	0.34
무배우자	0.14***	0.35	0.34	0.47	0.03	0.18
무직	0.35***	0.48	0.60	0.49	0.22	0.42
임금근로자	0.44***	0.50	0.22	0.42	0.53	0.50
자영업자	0.21***	0.41	0.14	0.35	0.20	0.40
건강상태	3.40***	0.77	2.94	0.86	3.69	0.60
로그(가구소득)	7.02***	2.22	4.33	2.97	8.43	0.35
가구소득	2501.01***	2259.46	481.96	488.77	4969.60	2971.64
로그(자산)	6.43***	3.38	4.75	3.80	8.12	2.45
자산	7656.41***	23164.51	4428.01	12978.89	15352.33	38472.61
2013년	0.14	0.35	0.15	0.35	0.14	0.35
2014년	0.14	0.35	0.14	0.35	0.14	0.35
2015년	0.14	0.35	0.14	0.35	0.14	0.35
2016년	0.14	0.35	0.14	0.35	0.14	0.35
2017년	0.14	0.35	0.14	0.35	0.14	0.35
2018년	0.14	0.35	0.14	0.35	0.14	0.35
2019년	0.14	0.35	0.14	0.35	0.14	0.35
관측 수	61,838		15,786		15,364	

주: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1>은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해 평가한 값을 연도별로 보여주는데, 전체 표본, 저소득층, 고소득층 모두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그림 1]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평가 추이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모든 연도에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3개의 그래프가 2015년도에는 신분상승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고소득층은 2015년 한 해에만 증가할 뿐 지속적으로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저소득층은 2016년도와 2019년도에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감소한 반면 다른 해에는 유지 또는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2. 시기별 신분상승에 대한 변화

〈표 3〉은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과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Hausman 검증 결과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기 때문에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도 동 모형에 집중한다. 또한 해석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위해 추정계수가 아닌 승산비(OR)를 활용한다. 〈표 3〉은 본 연구 주제 중 하나인 신분상승에 대한 평가가 최근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데,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의 결과는 2013~2015년 동안 한국인들이 평가한 신분상승 가능성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사

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2016년부터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여 매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가장 최근인 2019년도에 크게 감소한다.

추정계수를 고려할 때 2013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는 신분상승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평가가 0.83배로 감소하고, 2017년도에는 0.76배, 2018년도에는 0.75배, 2019년도에는 무려 0.61배로 감소한다. 승산비를 역산해보면 2019년도에 비해 과거 2013~2015년도에는 신분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정도가 1.64배나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에 비해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에서는 연령, 학력, 혼인상태, 노동시장 참여 형태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모형 모두에서 건강상태, 소득, 자산은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영향의 정도 역시 매우 컸다. 특히 건강상태의 영향이 컸는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신분상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를 고려 시, 건강상태를 1~5점으로 평가할 때 건강상태가 한 단위 개선될 때마다 신분상승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1.41배나 증가한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듯이 소득과 자산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신분상승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는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으로만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한 성별 효과를 고려할 때, 여성에 비해 남성이 오히려 신분상승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산비를 역산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1.19배 신분상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도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평가

구분	모델1			모델2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2014년	-0.08***	0.03	0.92	-0.03	0.04	0.97
2015년	-0.05*	0.03	0.95	0.04	0.04	1.04
2016년	-0.26***	0.03	0.77	-0.19***	0.04	0.83



2017년	-0.37***	0.03	0.69	-0.27***	0.04	0.76
2018년	-0.40***	0.03	0.67	-0.28***	0.04	0.75
2019년	-0.57***	0.03	0.57	-0.49***	0.04	0.61
30대	-0.34***	0.05	0.71	-0.14	0.11	0.87
40대	-0.41***	0.05	0.67	-0.25*	0.14	0.78
50대	-0.31***	0.05	0.74	-0.23	0.16	0.79
60대	0.03	0.05	1.03	-0.32*	0.18	0.72
70세 이상	0.59***	0.06	1.81	-0.23	0.20	0.79
고졸	-0.02	0.02	0.98	0.76	0.55	2.14
대졸	0.24***	0.03	1.27	0.40	0.56	1.49
배우자	0.25***	0.03	1.28	0.24*	0.14	1.28
무배우자	0.13***	0.04	1.14	0.23	0.19	1.26
임금근로자	-0.15***	0.02	0.86	-0.09	0.05	0.92
자영업자	-0.01	0.02	0.99	0.02	0.07	1.02
건강상태	0.47***	0.01	1.61	0.35***	0.02	1.41
로그(가구소득)	0.02***	0.00	1.02	0.02**	0.01	1.02
로그(자산)	0.09***	0.00	1.09	0.03***	0.00	1.03
남성	-0.17***	0.02	0.84			

주: 1. 모델1, 모델2 모두 Prob > F = 0.000.  
 2. 관측수 : 61,838(모델1, 모델2).  
 3.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아래 <표 4>는 연도별이 아닌 정권별로 국민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 왔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초에 비해 전 정부(2014~3016년)때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감소하였고, 현 정부에서는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정계수를 고려 시, 2013년에 비해 전 정부에서는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0.77배로 감소한 뒤에 현 정부에서는 무려 0.64배로 더 크게 감소했다. 승산비를 역산하면 현 정부 때보다 국민들이 과거 2013년도에는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1.56배나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변수들의 분석결과는 추정계수의 부호 및 유의성 등이 <표 3>의 결과와 대동소이하여 세부적인 해석과 논의는 여기서 생략한다.

〈표 4〉 정권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평가

구분	모델1			모델2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2014~2016년	-0.38***	0.03	0.69	-0.26***	0.04	0.77
2017년 이후	-0.56***	0.03	0.57	-0.44***	0.05	0.64
30대	-0.34***	0.06	0.71	-0.29**	0.13	0.74
40대	-0.42***	0.07	0.66	-0.45***	0.16	0.64
50대	-0.33***	0.07	0.72	-0.51***	0.20	0.60
60대	-0.02	0.07	0.98	-0.64***	0.23	0.53
70세 이상	0.55***	0.08	1.73	-0.60**	0.26	0.55
고졸	-0.05	0.03	0.96	0.86	0.68	2.37
대졸	0.22***	0.04	1.25	0.43	0.70	1.54
배우자	0.34***	0.05	1.40	0.26*	0.16	1.30
무배우자	0.18***	0.06	1.20	0.34	0.21	1.41
임금근로자	-0.14***	0.03	0.87	-0.15***	0.06	0.86
자영업자	0.04	0.04	1.04	0.12	0.09	1.13
건강상태	0.49***	0.02	1.63	0.37***	0.03	1.44
로그(가구소득)	0.01	0.01	1.01	0.01	0.01	1.01
로그(자산)	0.09***	0.00	1.09	0.04***	0.01	1.04
남성	-0.19***	0.02	0.83			

주: 1. 모델1, 모델2 모두 Prob > F = 0.000.  
 2. 관측수 : 61,838(모델1, 모델2).  
 3.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 3. 소득계층별 그리고 시기별 신분상승에 대한 변화

〈표 5〉는 연도더미변수와 소득계층(저소득층)의 교호작용 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연도별 결과는 이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2013~2015년 동안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변화가 없었고, 2016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9년도에는 0.59배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계층의 추정계수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여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기준 50% 이상 소득자들에 비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도별

변화가 아닌 2013~2019년 동안 신분상승에 대한 가능성 평가가 소득계층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호작용변수는 시기별로 소득계층별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 차이를 보여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저소득층과 다른 소득계층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7년도에는 유독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신분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어 해석이 조심스럽지만, 2017년도에는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해이며, 당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그리고 저소득자를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시작하던 초기였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신분상승 가능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에는 다시 기존처럼 저소득층과 다른 계층 간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표 5〉 소득계층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평가 : 저소득층

구분	모델1			모델2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2014년	-0.10***	0.04	0.90	-0.06	0.04	0.94
2015년	-0.08**	0.04	0.92	0.00	0.04	1.00
2016년	-0.28***	0.04	0.76	-0.21***	0.05	0.81
2017년	-0.40***	0.04	0.67	-0.32***	0.05	0.73
2018년	-0.42***	0.04	0.65	-0.31***	0.05	0.73
2019년	-0.58***	0.04	0.56	-0.52***	0.05	0.59
저소득	-0.19***	0.05	0.83	-0.30***	0.07	0.74
2014년*저소득	0.07	0.07	1.07	0.09	0.08	1.09
2015년*저소득	0.11	0.07	1.12	0.15*	0.09	1.16
2016년*저소득	0.05	0.07	1.05	0.05	0.08	1.05
2017년*저소득	0.12**	0.07	1.13	0.17**	0.09	1.19
2018년*저소득	0.08	0.07	1.08	0.10	0.09	1.11
2019년*저소득	0.04	0.07	1.04	0.10	0.09	1.11
30대	-0.34***	0.05	0.71	-0.15	0.11	0.86

40대	-0.40***	0.05	0.67	-0.25*	0.14	0.78
50대	-0.30***	0.05	0.74	-0.23	0.16	0.79
60대	0.06	0.06	1.06	-0.31*	0.18	0.73
70세 이상	0.62***	0.06	1.86	-0.23	0.20	0.80
고졸	-0.03	0.02	0.97	0.76	0.54	2.14
대졸	0.24***	0.03	1.27	0.41	0.56	1.50
배우자	0.23***	0.03	1.26	0.23	0.14	1.26
무배우자	0.12***	0.04	1.13	0.23	0.19	1.26
임금근로자	-0.14***	0.02	0.87	-0.09*	0.05	0.92
자영업자	0.00	0.02	1.00	0.02	0.07	1.02
건강상태	0.47***	0.01	1.61	0.35***	0.02	1.41
로그(자산)	0.09***	0.00	1.09	0.03***	0.00	1.03
남성	-0.17***	0.02	0.84			

주: 1. 모델1, 모델2 모두 Prob > F = 0.000.  
 2. 관측수 : 61,838(모델1, 모델2).  
 3.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식 4)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표 5>의 교호작용 변수는 다른 소득계층 대비 저소득층의 신분상승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평가차이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기준그룹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산층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고소득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두 그룹의 평가가 상쇄될 수 있다. 이에 아래의 <표 6>은 저소득층을 고소득층으로 교체하여 (식 5)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연도별 신분상승에 대한 평가 추이는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층은 중위소득 75% 이하 계층에 비해 신분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변수를 고려 시, 2013년과 비교하여 2014년도에는 고소득층은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이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럽지만, 2013~2014년 당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소득계층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후에는 고소득층과 다른 소득계층 간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식 4)를 분석한 <표 5>와 (식 5)를 분석한 <표 6>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득계층별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일시적으로만 변동된 것이 관측되었을뿐 2013~2015년까지 변동이 없다가 2016년부터 부정적으로 변경된 이후부터 매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표 3>의 결과가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소득계층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평가 : 고소득층

구분	모델1			모델2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2014년	-0.06*	0.03	0.94	0.01	0.04	1.01
2015년	-0.04	0.04	0.96	0.07	0.04	1.07
2016년	-0.26***	0.03	0.77	-0.17***	0.04	0.84
2017년	-0.37***	0.03	0.69	-0.25***	0.04	0.78
2018년	-0.41***	0.03	0.66	-0.28***	0.05	0.76
2019년	-0.58***	0.04	0.56	-0.49***	0.05	0.61
고소득	0.43***	0.05	1.54	0.25***	0.08	1.28
2014년*고소득	-0.08	0.07	0.92	-0.18**	0.09	0.84
2015년*고소득	-0.01	0.07	0.99	-0.12	0.09	0.89
2016년*고소득	0.03	0.07	1.03	-0.07	0.09	0.93
2017년*고소득	0.04	0.07	1.04	-0.08	0.09	0.92
2018년*고소득	0.08	0.07	1.08	0.01	0.09	1.01
2019년*고소득	0.09	0.07	1.09	0.00	0.10	1.00
30대	-0.25***	0.05	0.78	-0.14	0.11	0.87
40대	-0.36***	0.05	0.70	-0.25*	0.14	0.78
50대	-0.29***	0.05	0.75	-0.24	0.16	0.79
60대	0.11**	0.05	1.12	-0.32*	0.18	0.73
70세 이상	0.65***	0.06	1.92	-0.22	0.20	0.80
고졸	-0.05**	0.02	0.95	0.78	0.56	2.18
대졸	0.16***	0.03	1.17	0.39	0.58	1.48
배우자	0.20***	0.03	1.22	0.24	0.15	1.27
무배우자	0.11***	0.04	1.12	0.24	0.19	1.27
임금근로자	-0.16***	0.02	0.85	-0.08*	0.05	0.92

자영업자	-0.02	0.02	0.98	0.02	0.07	1.02
건강상태	0.47***	0.01	1.60	0.34***	0.02	1.40
로그(자산)	0.08***	0.00	1.08	0.03***	0.00	1.03
남성	-0.16***	0.02	0.85			

주: 1. 모델1, 모델2 모두 Prob > F = 0.000.  
 2. 관측수 : 61,838(모델1, 모델2).  
 3.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 V. 결론 및 시사점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보다 미래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희망적인 평가는 개인, 나아가 한 나라의 행복수준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국가 차원의 경제규모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수준도 비교적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개선되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수준은 높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UN 2020).

궁극적으로 왜 한국인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행복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온 만큼 과연 한국인들은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2013~2019)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추세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 정도를 최근 정부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추세가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4점 만점 중 2.52점 정도로 높지 않았으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평가가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평가 점수보다도 그러한 평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인데,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희망은 지속적으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이전 정부보다는 현

정부에서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최근으로 갈수록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그러한 부정적 평가가 특정 계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적 추세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왜 신분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왜 최근 들어 그러한 부정적 평가가 더욱 악화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이 국민 행복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본 연구는 장기 패널자료를 활용해 국민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평가가 계층별로 차이가 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행복도와 연계하여 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신분상승 가능성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개선됨에 따라 국민들의 행복수준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8권 2호: 317-339.
- 구재선·서은국. 2011.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제47권 2호: 27-52.
- 김대환·이봉주·류건식. 2017. “노후빈곤율의 진단과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빈곤 개선.” 『보험학회지』 제110권: 1-29.
- 김재우. 2019. “한국인의 주관적 사회계층, 기회공정 인식, 그리고 삶의 만족도: 성별·연령별 매개과정과 조절작용.” 『행정논총』 제57권 4호: 97-127.
- 윤인진·김상돈. 2008.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행정학보』 제21권 2호: 153-185.
- 이연경·이승중. 2017.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5권 1호: 1-39.
- Adler, N. E., T. Boyce, M. A. Chesney, S. Cohen, S. Folkman, R. L. Kahn, and S. L. Syme. 1994.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The challenge of the gradient.” *American Psychologist* 49(1): 15-24.
- Anderson, C., M. W. Kraus, A. D. Galinsky, and D. Keltner. 2012. “The local-leader effect: social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23(7): 764-771.
- Anderson, C. and S. Brion. 2014. “Perspectives on power in organizations.”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1(1): 67-97.
- Azizi, M., F. Mohamadian, M. Ghajarieah, and A. Direkvand-Moghadam. 2017. “The effect of individual factors, socioeconomic and social participation on individual happiness: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Clinical and Diagnostic Research* 11(6): VC01-VC04.



- Baker E. H. 2014. "Socioeconomic status, definition." *The Wiley Blackwell Encyclopedia of Health, Illness, Behavior, and Society*: 2210-2214
- Boyce, C. J., G. D. Brwon, and S. C. Moore. 2010. "Money and happiness: rank of income, not income, affects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21(4): 471-475.
- Cameron, A. C. and P. K. Tivedi. 2005. *Microeconometric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Clark, A. E., P. Frijters, and M. A. Shields.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1): 95-144.
- Easterline,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Cambridge, Academic Press.
- Ekici, K. and S. Koydemir. 2016. "Income expectations and happiness: evidence from British panel data."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1: 539-552.
- Greene, W. H. 2003. *Econometric analysis*,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J, USA.
- Hagerty, M., and R. Veenhoven.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growing wealth of nations: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1): 1-27.
- Hausman, J. A. 1978. "Specification tests in econometrics." *Econometrica* 46(6): 1251-1271.
- Kraus, M. W. and D. Keltner. 2008. "Signs of socioeconomic status: A Thin-Slicing Approach." *Psychological Science* 20(1): 99-106.
- Krishna, K. T. 1975. "Multicollinearity in regression analysi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7(3): 365~366.

- Luttermer, E. 2005. "Neighbors as negatives: relative earnings and well-be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3): 963-1002.
- Seeman, T. E., and E. Crimmins, E. 2001. "Social environment effects on health and aging: integrating epidemiologic and demographic approaches and perspective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ociety* 954(1): 88-117.
- Wooldridge, J. 2010.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2nd Edition. The MIT Press.
- OECD. 2021. "Gender wage gap" (indicator). doi: 10.1787/7cee77aa-en (accessed July 3, 2021).
- UN. 2020. "World happiness report." <https://happiness-report.s3.amazonaws.com/2020/WHR20.pdf>.
- Zhou, W. 2014. "Determinants of Korean happiness: a cross-sectional analysis." In *Measuring and Explaining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edited by Sung Wa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Changes in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Possibility of Socioeconomic Class Elevation in Korean Society

Daehwan Kim\*·Sangyong, Han\*\*

### ABSTRACT

It is known that a hopeful evaluation of whether socioeconomic status can be improved is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socioeconomic status in determining the level of happiness of individuals and of a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s evaluate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ir socioeconomic statu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long-term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using an ordered logit two-way fixed effect model, we find that the expectation for the possibility of a rise in status is not as high as 2.52 out of 4, and more importantly, our evidence shows that the expectation gradually gets worse. In particular, we find that Koreans are much more negative about the possibility of a rise in socioeconomic status under the current regime than the previous regime. In addition, the results of subdivided analyses by income class provide evidence that the expectation for the possibility of a rise in status gradually deteriorates in all classes, not in specific classes. For future research, it will be an important task to find out why Koreans negatively evaluate the possibility of rising class and why it is getting worse in recent years as well a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sibility of rising class and the level of happiness.

Keywords : Socioeconomic Status, Social Class Elevation, Ordered Logit Two-Way Fixed Effect Model, Ordered Logit Random Effect Model, Income Class

투고일: 2021.09.02.    심사일: 2021.10.16.    게재확정일: 2021.11.19.

\* Professor, Dong-A University

\*\* Research Fellow,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